

비교 국가적 관점에서 본 한국 여성가구의 빈곤

김수정
동아대학교

이 연구의 목적은 LIS 데이터와 한국복지패널(2005)을 이용하여 한국 여성가구의 빈곤을 비교국가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남녀 빈곤율 격차와 빈곤층내 여성비율을 지표로 사용하여 한국 여성가구의 빈곤의 심각성을 밝히고자 했다. 둘째, 여성가구 중 특히 빈곤에 취약한 두 집단인 여성노인과 모자가구(single mother) 집단의 빈곤율을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이를 통해 드러나는 우리나라 여성빈곤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한국 여성가구의 빈곤은 절대적인 빈곤규모나 남녀 상대적 차이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있다. 여성가구의 40%가 빈곤한 경우는 한국 사회밖에 없으며, 남녀 빈곤율 차이가 20%p이상인 국가 역시 한국밖에 없다. 여성가구의 빈곤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다시 한번 강조될 필요가 있다. 둘째, 퍼스(Pearce)적 의미의 “빈곤의 여성화”, 즉 빈곤층 내 여성가구 비율(중위소득 50% 상대빈곤선 적용)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한국의 빈곤은 “아직” 여성화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구의 인구학적 비중이 낮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18%) 한국 사회에서도 여성은 빈곤층에 과잉대표(over-representation)되고 있다(40%). 셋째, 여성가구의 빈곤을 하위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한국의 경우, 모자가구보다 여성노인의 빈곤이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여성노인의 빈곤율이 높은 국가는 사민주의 국가와 가족주의적 특징을 띤 한국, 대만과 같은 나라이다. 반면, 자유주의 국가들과 조합주의 국가들에서는 모자가구의 빈곤위험이 더 크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구분은 사민주의, 자유주의, 조합주의, 가족주의의 네가지 복지레짐 분류와 일치한다. 여성빈곤과 관련하여 레짐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복지정치와 젠더정치의 측면을 고려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용어 여성가구, 빈곤의 여성화, 독신모, 모자가구, 여성노인빈곤, 복지레짐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이 연구는 『2006년 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에 실린 “빈곤의 젠더격차: 여성가구 빈곤의 심각성 및 빈곤원인”을 보완, 발전시킨 것이다. 논문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언 해주신 익명의 세 분 논평자에게 감사드린다.

교신처: 김수정, 동아대학교(ksujeong@hanafos.com)

■ 투고일: 2008. 09. 27

■ 수정일: 2008. 10. 24

■ 게재확정일: 2008. 11. 05

I. 서론

우리 사회에서 “빈곤의 여성화”는 더 이상 낯선 용어가 아니다. 1990년대 말 경제위기를 전후해 주목받기 시작한 젠더화된 빈곤은 “여성가구주에 대한 해결이 없으면 빈곤문제의 해결은 없다”¹⁾고 할 정도로 빈곤문제의 핵심적 특징으로 부각되었고 “빈곤의 여성화”는 여성빈곤의 심각성을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표어가 되었다.

“빈곤의 여성화” 테제가 최초로 제기된 것은 1970년대 말 미국사회의 여성빈곤을 분석한 다이애너 퍼스(Diana Pearce)에 의해서였다. 이후 다양한 나라와 지역을 대상으로 여성빈곤에 대한 관심과 조사가 확산되었다. 조사결과 빈곤의 여성화는 단지 미국뿐 아니라 유럽, 아시아 지역에서도 예외없이 관찰되는 경향이였다(Goldberg and Kremen, 1990; ESCAP, 2000). 1990년대 중반 UNDP는 이처럼 많은 국가들에서 발견되는 젠더화된 빈곤현상에 대해서 “빈곤은 여성의 얼굴을 하고 있다”라고 선언하기도 했다(UNDP, 1995).

한국의 경우 여성가구주는 남성가구주보다 3배정도 높은 빈곤위험을 보인다(석재은, 2004; 김안나, 2007; 김수정, 2007). 또, IMF 이전인 1990년대 중반과 비교했을 때 여성가구주의 빈곤율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여러 연구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빈곤의 여성화는 종료형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의 여성빈곤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떤 특성을 갖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국제적인 수준에서 보았을 때 한국의 여성빈곤이 얼마나 심각한 지, 남녀빈곤격차가 크다면 어느 정도인지, 과연 한국에서도 여성은 빈곤층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지 등 빈곤의 여성화와 관련된 여러 지표를 중심으로 비교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아울러 여성가구주 중에서도 노인가구와 한부모가구의 빈곤위험이 높다고 할 때 한국의 경우는 어느 쪽이 더 취약집단인지, 비교를 통해 보았을 때 어떤 유형론적 특성이 나타나는지 살펴볼 것이다.

“빈곤의 여성화”는 젠더화된 경제적 불평등의 심각성과 모자가구(single mother) 빈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사회운동 표어로 종종 사용되지만, 학문적으로 보았을 때 크게 네가지 차원을 가리킨다(Cagatay, 2001; Medeiros and Costa, 2006). 첫째, 남성보다 여성의 빈곤위험이 높다(difference, ratio). 둘째, 여성의 빈곤이 남성보다 더 심각하다(severity). 셋째, 빈곤층 내 여성의 비율이 더 높다(proportion).²⁾ 넷째, 시계열적으로 여성가구주의 빈곤율이 점차 증가한다(trend)³⁾. 이 네 차원은 동시에 진행되기도 하고 비동시적으로 진행되면서 여성 빈곤의 여러 차원을 드러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여성가구주의 빈곤율이 높다하더라도 빈곤심각성을 나타내는 다

1) 인권하루소식 2768호 2005. 3.19일.

2) 1970년대 퍼스가 “빈곤의 여성화”를 분석한 것은 셋째와 넷째 차원과 관련된 것이다. 즉 여성가구주의 빈곤율이 양적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가 발견되고 또 빈곤층의 다수, 즉 2/3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빈곤은 여성화되었다”고 주장했다.

른 지표는 낮을 수 있다. 즉 여성빈곤가구수가 양적으로 많다고 하더라도 극한적 빈곤에 처한 경우는 적을 수 있다. 또, 여성가구주의 빈곤위험이 매우 높다고 하더라도 빈곤층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을 수 있다. 그것은 첫 번째 차원(ratio)과 세번째 차원(proportion)이 각각 산술적으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 여성가구주가 인구학적으로 매우 적은 숫자에 불과하다면 이 집단의 빈곤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빈곤층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남성이 더 높게 된다.

이 연구는 먼저 빈곤의 여성화를 보여주는 네 지표 중에서도 기본 지표인 첫 번째와 세 번째 지표, 즉 빈곤율의 남녀격차와 빈곤층 내 여성비율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 여성빈곤을 비교국가적 관점에서 점검하고자 한다. 남성가구주와 여성가구주의 빈곤격차는 남성생계부양자가 없는 가구가 당면하게 되는 경제적 곤란을 보여주고 남성과 비교했을 때 여성가구주의 상대적 경제적 지위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나아가, 남녀의 빈곤격차는 한 사회의 젠더질서가 얼마나 차별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다.

둘째, 여성가구주의 빈곤은 남성생계부양자의 부재라는 공통의 조건 위에서 여성노인의 빈곤과 모자가구(독신모)의 빈곤으로 드러난다. 모든 사회에서 여성노인과 독신모는 빈곤에 취약한 집단이지만, 각 사회의 노동시장, 가족, 복지제도의 특징에 따라 빈곤위험은 달라진다. 이 연구에서는 여성가구주 중 특히 빈곤에 취약한 두 집단인 여성노인과 모자가구 집단의 빈곤율을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이를 통해 드러나는 우리나라 여성빈곤의 특징을 발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II. 기존 연구 검토

퍼스(Pearce)가 분석한 1970년대 미국사회는 16세 이상 성인빈곤층 1,500만 명 중 2/3, 노인빈곤층의 70% 이상이 여성이고, 빈곤가구의 절반 이상이 여성가구주 가구였다. 그녀는 이처럼 여성이 빈곤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현실을 “빈곤의 여성화”로 개념화했다.⁴⁾ 퍼스의 연구를 한국에 적용한 이해경은 도시가계자료를 이용하여 빈곤인구의 2/3가 여성이며, 빈곤노인층의 4/5가 여성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한국에서도 “빈곤의 여성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주장했다(이해경, 1998).

한국사회에서 여성빈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IMF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위기를 전후한 경제적 불안과 가족 해체의 파국적 결과를 고스란히 떠안은 집단이 여성가구주였기 때문에 이들 여성의 빈곤실태와 빈곤원인에 대한 학문적, 정책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다(김영란, 1998; 박경숙, 2001; 변화순, 송다영, 김영란, 2002; 박영란 외, 2003). 이 연구들은 전통적 남성생계부양자 가족을 벗어난 다양한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제적 사회적 취약성을 분석

3) 다른 세가지 지표에서도 모두 시계열 자료를 볼 수 있다. 또 절대적 지위와 상대적 지위를 포함할 경우 여성빈곤을 측정하는 지표는 매우 다양해질 수 있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4가지 지표로 국한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4) 퍼스는 1978년 논문에서 빈곤의 여성화 경향을 보여주는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하면서 차별적 노동시장, 복지정책의 부재가 여성빈곤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⁵⁾

질적 연구의 흐름과 병행하여 가구소비실태, 도시가계조사, 노동패널 등의 전국규모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한국 여성가구주 빈곤 프로파일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도 나타났다(김안나, 2007; 김수정, 2007; 석재은, 2004; 윤희식, 2004; 여지영, 2003). 이 연구들은 한국 사회에서 빈곤의 여성화가 “진행 중”이며, 특히 IMF 경제위기를 전후해서 여성빈곤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⁶⁾ 또 빈곤원인과 관련하여 여성가구주의 빈곤은 연령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여성노인의 빈곤), 또 교육수준과 같은 인적자본이 많을수록, 취업지위가 안정적인수록(상용직) 빈곤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지위, 부양자녀수 등에서는 선택자료나 변수에 따라 통일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한국 여성가구주 가구는 남성가구주와 유사한 원인을 공유하지만 동일한 위험원인을 더 심각하고 파국적으로 경험하고 있다(김수정, 2007).

한국 여성빈곤에 대한 연구가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빈곤연구에 필요한 시계열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성인지적(gender-sensitive) 변수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성빈곤의 특징을 파악하고 설명을 하는데 있어 여러 한계를 안고 있다. 이와 같은 한계로 인해 아직 국제적인 수준에서 한국 여성빈곤의 특징을 파악하는 연구는 없는 상황이다. 한편, 유럽 및 북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여성빈곤의 특성을 비교국가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국가별 차이를 규명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생산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중반이후 LIS(Luxembourg Income Study) 센터가 가족, 소득, 노동지위 등과 관련된 국가별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빈곤과 관련된 비교국가 연구들이 대거 생산되기 시작되는데, 빈곤의 여성화 논의 역시 LIS 데이터를 사용하여 비교국가적인 특성을 분석하는 단계로 발전했다(Christopher et.al, 2002; Christopher, 2002; Wiepking and Maas, 2005; Brady and Kall, 2007).

여성빈곤율의 경우 북구 사민주의 복지국가가 가장 낮고 남녀의 격차도 가장 적으며, 영미 자유주의 국가는 빈곤율이 높게 나타난다(Brady and Kall, 2008). 일반적으로 북구국가와 자유주의 국가 모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여성가구주의 빈곤과 관련하여서는 소극적인 복지정책을 실시하는 자유주의 국가에서 빈곤위험이 크게 나타난다.

캐스퍼 등(Casper, McLanahan and Garfinkel, 1994)은 복지레짐 특성과 관련하여 서구 국가들에서 발견되는 여성빈곤의 독특한 양상을 분석하는 흥미로운 연구를 제출한 바 있다. 그들은 서

5) 대부분의 연구의 초점이 저소득 모자가구와 같은 특정구집단, 고령빈곤과 같은 생애주기상 특정시기에 경험하게 되는 빈곤문제와 복지욕구에 집중되어 있어 하위집단의 질적 특징을 밝히는 장점이 있지만 여성빈곤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있어 방법론적인 한계가 있다.

6) 석재은(2004)은 IMF를 전후한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 변화를 분석했는데, 1996년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28.5%인데 반해 2000년에는 34.2%로 증가하였다. 반면 동기간 남성가구주의 빈곤율은 6.74%에서 11.04%로 증가하였는데, 비율에서는 여성의 증가율이 낮지만, 절대 증가량으로 본다면 여성가구주의 빈곤은 IMF 이후 크게 증가했다.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분석한 김안나(2006)에 따르면, 모든 기준의 빈곤율 지표에서 여성가구주는 남성보다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고, 가구주의 성별 빈곤 격차는 2000년 이후 더욱 커지고 있다. 또, 김안나(2007)는 가계소비실태조사의 1996년 자료와 가계조사 2006년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 빈곤가구주의 특성이 부분적으로 변화되었음을 분석하였다. 즉, 여성빈곤 가구주의 경우 30~40대 연령층의 비율이 확대된 반면 남성은 60대 이상의 빈곤층이 증가하였다. 여성가구주의 경우 고졸자 및 대졸자의 비율이 확대되었다.

구 8개 국가의 1980년대 중반자료(LIS)에 대한 분석을 통해 빈곤율의 젠더격차는 가족, 고용, 국가(복지)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들에 의하면, 남녀의 빈곤격차를 줄이는 세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강한가족'에 의해서 여성가구의 증가 및 확산이 저지되거나(이탈리아방식) 둘째, 여성의 취업 및 임금상황이 상대적으로 유리해 여성이 자신의 소득원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거나(스웨덴 방식) 셋째, 국가의 공적 급여가 후할 경우에 빈곤의 여성화가 저지되고 남성과 유사한 수준의 빈곤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네덜란드).

III. 자료 분석

1. 한국 남녀가구의 빈곤율

국제비교에 앞서 2006년에 실시된 1차 복지패널 자료를 대상으로 상대빈곤선과 절대빈곤선을 기준으로 남녀가구의 빈곤율을 추정하였다.⁷⁾ 상대빈곤선은 가처분소득에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한 후, OECD 상대빈곤선 기준인 중위소득 50%로 구성하였다. 상대빈곤선은 소득분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심각한 경제위기에도 하위집단에서 빈곤이 악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절대빈곤율을 함께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절대빈곤율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소득기준은 경상소득에서 사회보장이전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사용하였다. 경상소득에는 이미 사회보장의 효과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금액이 절대빈곤의 수준을 파악하는데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김미곤 외, 2007). 절대빈곤선의 기준은 정부발표 최저생계비(2005년)를 적용하였다.⁸⁾ 상대빈곤과 절대빈곤은 각각 가구와 개인수준으로 나누어 측정되었는데, 가구수준은 가구가중치를 부여한 것이고, 개인수준은 빈곤가구에 포함된 개인수를 고려하여 개인가중치를 부여하여 측정하였다.

복지패널 자료의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 먼저, 남녀가구를 비교했을 때 남성가구의 가구빈곤율은 13.6%, 여성가구는 40.2%로, 여성가구가 약 3배정도 높은 빈곤율을 보인다.⁹⁾

7) 이 연구에 사용된 1차 복지패널 자료의 기준시점은 2005년이다. 전국규모의 추정을 가능케 하는 자료로는 복지패널 외에도 도시가계조사, 가구소비실태조사가 있다. 먼저 2005년부터 측정된 복지패널자료는 1인 가구, 농어촌가구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전국적인 수준에서 소득불평등, 빈곤지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자료이다. 도시가계조사 자료는 2003년 이전까지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약 5천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고, 2003년 이후에는 전국에 거주하는 가구(약 7,500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가계조사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농어가, 1인 가구를 제외하는 한계가 있었고, 2006년부터는 1인 가구를 포함(약 9천 가구)하여 조사하고 있지만 여전히 농여가의 상황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가구소비실태조사는 1인가구를 포함하였지만 농여가를 제외했고 2000년 이후 자료생산이 중단되었고 가계조사로 통합되었다. 복지패널은 1인가구와 농여가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전국 추정치를 내는데 있어 가장 적합하다.

8) 2005년 정부발표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401,466원, 2인 가구 668,504원, 3인 가구 907,929원, 4인 가구 1,146,332원, 5인 가구 1,302,918원, 6인 가구 1,477,800원, 7인 가구 1,652,682원이다.

9) 2005년 도시가계자료에서 상대빈곤선 기준 여성가구의 가구빈곤율은 27.3%로 나타나는데, 이에 비한다면 복지패널자료의 40.2%는 매우 높은 수치이다. 이와 같은 차이는 도시가계조사 추정치가 1인가구와 농어촌 가구를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빈곤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남녀가구의 빈곤율은 절대/상대빈곤, 가구/개인 빈곤율 모두에서 3~3.5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1. 남녀가구주 가구의 가구빈곤율과 인구빈곤율

(단위: %)

		남성가구주	여성가구주	전체
상대빈곤	가구	13,6	40,2	18,5
	개인	12,3	40,4	15,2
절대빈곤	가구	10,5	32,1	13,2
	개인	8,7	30,8	11,0

표 2. 빈곤층 내부에서 남녀가구주가 차지하는 비중

(단위: %)

		남성가구주	여성가구주	전체
상대빈곤	가구	60,4	39,6	100,0
	개인	72,2	27,8	100,0
절대빈곤	가구	59,6	40,4	100,0
	개인	70,7	29,3	100,0

빈곤층 내 여성가구주와 남성가구주의 비율을 살펴보면(표 2), 상대빈곤율과 절대빈곤율 모두에서 남성가구주가 60%, 여성가구주가 40% 비율로 나타난다. 조사대상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율이 18.2%(남성가구주 81.8%)인 것을 고려할 때 여성가구주가 빈곤층내 집중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성가구주의 총수가 적기 때문에 빈곤층내에서는 남성가구주의 비중이 1.5배 더 높은 상황이다. 개인수준의 빈곤을 비교하면 7:3 정도로 남성가구주 가구원들의 비중이 높다.

표 3의 빈곤율은 가구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가구가중치에 성별 가구원수를 곱한 가중치를 새로 부여한 값이다. 복지패널자료(2005)를 기준으로 한국 남성의 (상대)빈곤율은 11.9%이며, 여성은 14.5%이다. 가구주를 단위로 했을 때 여성가구주의 빈곤율이 40.2%이고, 남녀차이가 27%p였던 것에 비하면 남녀 빈곤율은 빈곤의 규모도 적을 뿐 아니라 남녀간의 격차도 줄어든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이는 빈곤이 완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빈곤여성가구주의 경우 단독가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구를 단위로 한 빈곤율에서는 여성가구주의 빈곤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에 비해 남녀빈곤율은 전인구를 대상으로 가구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빈곤율을 추정한 것인데, 여성의 빈곤율은 남성보다 2.6%p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 남녀 빈곤율

(단위: %)

	남성가구주	여성가구주	전체
상대빈곤	11,9	14,5	13,2
절대빈곤	9,8	12,1	11

주: 가구원 성별 가중치 부여

“빈곤의 여성화”는 종단적으로는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위험이 증가하는 추이를 의미하는 동시에, 횡단적으로는 남성보다 여성의 빈곤위험이 더 높은 현실을 의미한다. 앞의 지표들은 종단자료를 비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이를 볼 수는 없다. 단일 시점 비교를 했을 때,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위험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빈곤의 여성화”가 경계하는 여성가구주의 높은 빈곤위험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빈곤층 내 성비를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여성가구주가가 빈곤층의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은 아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 여성가구주의 인구학적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고 남성가구주 가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가족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빈곤층 내 비중으로 본 빈곤의 여성화, 즉 퍼스(Pearce)적 의미에서 빈곤의 여성화는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빈곤층 내에서는 여전히 남성가구주의 비중이 6:4 비율로 더 높다. 그러나 도시가계조사(도시근로자가구 대상) 등 시계열 분석이 가능한 자료들의 추이를 보면, 2000년 이후 여성가구주가의 빈곤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김안나, 2007)¹⁰⁾ 또 빈곤에 취약한 여성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빈곤층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에서도 성별 역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국제적인 수준에서 한국 여성가구주의 빈곤은 얼마나 심각한가?

가. 가구빈곤율¹¹⁾

LIS 데이터에 포함된 18개국¹²⁾을 대상으로 가구빈곤율을 젠더별로 측정하면 표 4와 같다. 모든 국가에서 남성가구주가 다수이기 때문에, 남성가구주가의 빈곤율이 가장 낮은 국가가 전체빈곤율도 낮다. 남성가구주가의 빈곤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이며, 가장 높은 국가는 멕시코, 러시아, 한국 순이다. 한국은 멕시코에 이어 전체 빈곤율이 매우 높은 국가에 속한다.

한국의 경우 특히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이 40.2%로, 가장 낮은 국가인 핀란드보다 약 5배정도 높다. 빈곤율이 높은 국가들도 대부분 20%대에 머물고 있는데 비해 한국은 여성가구주의 빈곤위험이 예외적으로 높은 나라이다. 여성가구주 빈곤의 절대적 수치가 크기 때문에 남성과 비교하였을 때 비율(여/남)과 차이(여-남)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한국은 남녀 빈곤 비율(ratio)에서는 3배, 차이(difference)에서는 25%p 정도를 보이고 있다. 2005년 기준 한국 남성의 빈곤율은 중상위권이고, 여성의 빈곤율은 가장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다.

10) 도시가계자료를 이용하여 빈곤율의 시계열 변화를 살펴본 김안나(2007)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가구주 빈곤율(중위소득50% 상대 빈곤율)은 1995년 22.9%, 2000년 24.6%, 2001년 25.9%, 2002년 27.1%, 2003년 30.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1) 가구 빈곤율을 포함해 이하에서 사용되는 모든 빈곤율은 OECD 기준 빈곤선(중위소득 50%)을 사용하여 측정한 상대 빈곤율이다.

12) OECD 30개국 중 동구권국가(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와 터키의 자료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40% 이상의 높은 빈곤율을 보이는 한국 여성가구주의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이며 러시아나 대만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노르웨이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남녀가구주 빈곤격차가 높게 나타나지만 노르웨이의 남녀 빈곤율 차이는 10%에 불과하다.

표 4. 가구빈곤율의 국제비교

국 가	연 도	남성가구주	여성가구주	전 체	비율(여/남)	차이(여-남)	여성가구주비율*
네덜란드	1999	4.2	10.1	5.6	2.4	5.9	24.3
덴마크	2000	4.2	8.9	5.8	2.1	4.6	33.2
핀란드	2000	4.4	8.2	6.0	1.8	3.8	40.7
벨기에	2000	5.8	12.3	7.9	2.1	6.5	31.9
스웨덴	2000	5.8	11.8	8.2	2.0	6.0	39.4
노르웨이	2000	5.3	15.8	8.3	3.0	10.5	28.8
프랑스	2000	6.0	15.9	8.4	2.7	10.0	24.9
독일	2000	7.0	14.2	10.0	2.0	7.2	40.7
캐나다	2000	8.5	21.6	13.4	2.5	13.1	37.4
대만	2000	9.3	20.1	11.8	2.2	10.8	19.1
영국	1999	8.9	21.1	12.1	2.4	12.2	25.7
호주	2001	9.7	27.1	13.9	2.8	17.4	24.3
이탈리아	2000	10.2	16.8	12.5	1.7	6.7	35.2
스페인	2000	11.9	16.8	13.3	1.4	4.9	28.3
러시아	2000	15.1	18.5	16.1	1.2	3.4	27.9
미국	2000	13.3	24.2	18.2	1.8	10.9	45.2
멕시코	2002	20.0	22.7	20.5	1.1	2.7	20.0
한국	2000	11.0	34.2	16.1	3.1	23.2	18.5
한국	2005	13.6	40.2	18.5	3.0	26.6	18.2

주: 1) LIS 자료는 가장 최근의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되, 덴마크, 호주 등 2000년 이후의 정보가 있는 일부국가들은 2000년 자료를 분석하였음. 한국 2000년은 가구소비실태자료(농어가 미포함), 2005년은 복지패널 자료임.

2) 여성가구주 비율은 LIS 각국 데이터의 분포를 기준으로 한 인구학적 비중임.¹³⁾

자료: LIS, 한국 가구소비실태(2000), 한국 복지패널(2005).

나. 인구빈곤율

빈곤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수를 고려한 인구빈곤율을 성별로 국제비교하면 표 5와 같다. 인구빈곤율의 경우에도 네덜란드가 가장 낮고, 러시아, 한국, 멕시코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남녀비율(ratio)에서 노르웨이와 네덜란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양국은 남성가구주의 빈곤율이 최저수준(3.7%, 3.3%)이기 때문에 젠더비율(gender ratio)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반대로 빈

13) 미국 센서스 2000에 따르면 여성가구주 가구(단독+유배우 여성가구주 포함)의 비율은 43.9%이다. LIS에 비해 미 센서스 2000년 자료가 1% 정도 더 높다. 한편, 미국통계청이 발표하는 여성가구주비율은 “남편(husband)”이 없는 여성가구주만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 가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7.5%이고 빈곤율은 25.4%이다. 미통계청, www.census.gov 사이트의 historical poverty table, Family Status and Household Relationship of People 15 Years and Over, by Marital Status 참조.

곤율이 높은 국가에서 남녀비율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남성가구의 빈곤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가구 가구의 빈곤율이 40%를 넘어서는 최악의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젠더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한국의 남녀비율은 3.3배, 남녀차(difference)는 28.1%로 매우 높은 불평등 정도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와 멕시코와 같이 체제전환이나 경제위기를 경험한 국가들에서도 여성가구의 빈곤율은 한국처럼 높지는 않다. 오히려 멕시코의 경우 인구빈곤율에서는 여성가구보다 남성가구 가구가 더 높은 상황이다. 러시아의 경우 여성빈곤율이 더 높기는 하지만 남녀의 격차가 크지는 않다. 가구빈곤율과 인구빈곤율의 국제지표를 살펴보았을 때 전체빈곤율이 10%를 넘어가는 국가들 중에서도 한국의 여성가구의 빈곤위험은 극단적으로 높고 남녀간의 빈곤격차도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인구빈곤율의 국제비교

(단위: %)

국 가	남성가구주	여성가구주	전 체	비율(여/남)	차이(여-남)
네덜란드	3.3	14.8	4.9	4.5	11.6
덴마크	3.9	9.7	5.4	2.5	5.8
핀란드	3.5	9.1	5.4	2.6	5.6
벨기에	6.5	13.8	8.1	2.1	7.3
스웨덴	4.1	11.6	6.5	2.9	7.5
노르웨이	3.7	18.4	6.4	5.0	14.7
프랑스	5.4	18.4	7.3	3.4	13.0
독일	5.6	13.8	8.4	2.4	8.1
대만	7.8	16.6	9.1	2.1	8.8
영국	9.4	26.2	12.5	2.8	16.8
이탈리아	11.7	15.3	12.8	1.3	3.6
스페인	12.4	20.6	14.2	1.7	8.2
캐나다	6.8	25.5	12.4	3.8	18.7
호주	9.9	28.0	13.0	2.8	18.2
러시아	17.4	25.6	18.7	1.5	8.3
미국	12.6	23.1	17.1	1.8	10.5
멕시코	20.3	19.6	20.2	1.0	-0.7
한국	12.3	40.4	15.2	3.3	28.1

자료: 분석 데이터와 자료연도는 표 4와 동일함(한국 복지패널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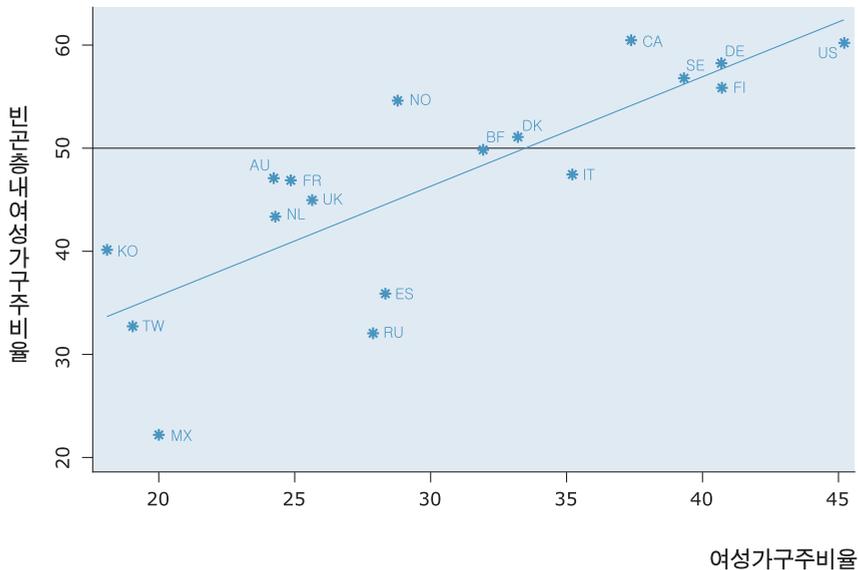
다. 빈곤층 내 비율(proportion)

미국에서 “빈곤의 여성화” 테제가 최초로 제기되었을 때 문제가 되었던 것은 “빈곤층 내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빈곤의 여성화”는 두 가지 방식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여성의 빈곤위험이 높을 경우 여성이 빈곤층의 다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둘째,

여성가구주의 인구학적 비중이 증가할수록 빈곤층에서 여성가구주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기 마련이다. 두 번째 의미에서 빈곤의 여성화는 객관적으로 여성가구주의 상황이 악화되지 않더라도 인구학적 변화에 의해 추동될 수도 있다(Pressman, 2003).

그림 1은 여성가구주의 인구학적 비중과 빈곤층 내 비중을 교차시킨 것이다. 이 그림에서 Y=0.5 라인의 위쪽에 있는 국가들은 빈곤가구의 절반 이상이 여성가구주인, 즉 빈곤이 여성화된 국가들이다. 상단에 위치한 국가들은 인구학적으로는 남성가구주가 다수이지만 빈곤층 내에서는 여성가구주가 더 많은 국가들이다. 우리나라는 하단에 위치하고 있어, 아직 빈곤층 인구에서 여성가구주가 다수가 아닌 상태이다.

그림 1. 여성가구주 비율 대비 빈곤층 내 여성가구주 비율(proportion) (단위: %)



자료: 표 4와 동일

*국가약어: KO: 한국, TW: 대만, MX: 멕시코, RU: 러시아, ES: 스페인, NL: 네덜란드, FR: 프랑스, BE: 벨기에, AU: 호주, CA: 캐나다, UK: 영국, US: 미국, NO: 노르웨이, DK: 덴마크, SE: 스웨덴, FI: 핀란드

이 그림에서 빈곤의 여성화가 일어난 나라들(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미국, 캐나다, 독일)은 (노르웨이를 제외한다면)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높은 나라들이다. 즉 이들 국가들에서 여성가구주는 수적으로 많으면서 또 빈곤층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높다. 우측상단에 있는 미국의 경우 여성가구주의 비율도 높고(45%) 빈곤층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60%). 반면, 대만과 멕시코와 같은 국가들은 여성가구주의 형성 정도가 낮고 빈곤층 내 비중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한국은 좌측중단에 위치하고 있는데 멕시코나 대만과 같은 나라보다 가구비율은 낮지만 빈곤층에서 여성가구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훨씬 높다.¹⁴⁾

위 결과에서 상대적으로 여성가구주 수가 적지만 빈곤층에 집중 분포하고 있는 경우는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좌측 극단에 있는 우리나라가 그 경우에 해당되는데, 분석대상 중에서 한국 여성가구주는 인구학적 비중은 가장 낮은데도 불구하고(18%) 빈곤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0%가 넘는 매우 예외적인 분포를 보여준다. 즉, 한국의 여성가구주는 인구학적 비중에 비해 빈곤층 내에서 과잉대표(over-representation)되어 있다. 이는 미국처럼 인구학적 비중이 큰 집단이 빈곤층 내에서 다수 대표되는 것과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

먼저, 이 집단의 높은 빈곤위험은 여성가구주의 형성 자체를 억제한다고 볼 수 있다. 여성가구주의 형성원인이 혼인지위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높은 빈곤위험을 피하기 위해 남성가구주 가구 내에 여성의 ‘숨겨진 빈곤’이 있을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둘째, 이 집단은 빈곤층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집단이 아니다. 따라서 빈곤 발생율이 높은 고위험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우선순위가 부여되지 못하고 적절한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여성가구주는 일단 빈곤화되면 빈곤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라. 여성가구주가 많을수록 빈곤율이 증가한다?

1960년대와 1970년대 미국에서 나타났듯이 여성가구주의 인구학적 증가는 여성가구주의 빈곤율을 동반 상승시킨다. 다시 말해 여성가구주의 수와 여성가구주의 빈곤율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데, 여성가구주가 빈곤 위험이 높은 집단이라는 점을 전제한다면, 여성가구주의 수적 증가는 빈곤율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경향은 단일 국가 내에서는 사실이지만, 비교 국가적으로 보면 채택할 수 없는 가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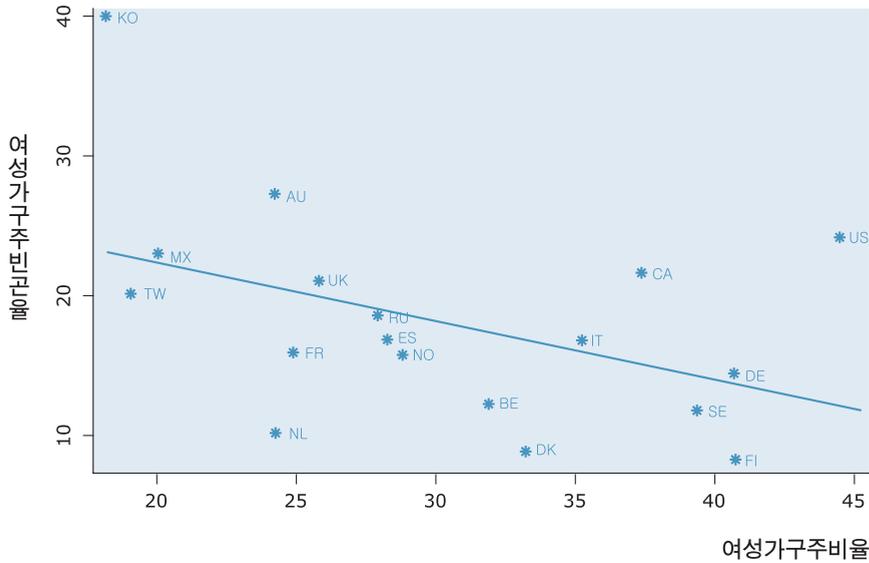
그림 2는 여성가구주 비율이 높을수록, 오히려 여성가구주의 빈곤율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준다. X축은 여성가구주 비율이고, Y축은 여성가구주 빈곤율이다. 추세선에서 미국과 한국이 이상점으로 나타나는데, 미국의 경우 여성가구주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율이 예외적으로 높고, 한국의 경우 여성가구주 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율이 심각하게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여성가구주가 많지만 빈곤위험은 낮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는 해당 사회에서 여성가구주가 독자적인 가구를 형성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경제적 권리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성지배적 사회에서 여성가구주는 애초부터 규범적으로 형성 자체가 억제되고 빈곤위험 및 사회적 배제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소수 집단화되는 경향이 있다. 비교 국가적으로 보았을 때 여성가구주가 양적 소수라는 것은 그 사회의 여성가구주가 사회적, 경제적 소외를 경험하는 사회적 약자 집단임을 반증한다. 서구 국가들 중 여성가구주 비율이 높지만 빈곤율이 낮은 나라의 경우 이미

14) 노르웨이와 같은 국가는 여성가구주의 비중은 30%에 못 미치지만, 빈곤층의 절반이상이 여성가구주 가구이다. 그러나 노르웨이는 빈곤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의 하나라는 점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가구 빈곤율 6.4%).

여성가구주 형성에 대한 규범적 제재가 약해졌고 사회문화적 장벽이 많이 낮추어진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들에서는 여성가구주가 ‘정상 가족’이며 경제적 취약성의 정도도 낮다. 반면, 여성가구주에 대한 사회문화적 배제가 큰 나라일수록 여성가구주의 형성이 억제되고 빈곤율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그림 2. 여성가구주 비율 대비 여성가구주 빈곤율 (단위: %)



자료: LIS, 복지패널(2005).

이와 같은 발견을 바탕으로 여성가구주의 빈곤유형을 구분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여성가구주 빈곤유형 (빈곤율과 인구학적 비중 교차)

		여성가구주 빈곤율	
		높음	낮음
여성가구주 비중	다수	I 분절형 문화적 통합 경제적 취약	II 독립형 문화적 통합 경제적 독립
	소수	IV 배제형 문화적 배제 경제적 취약	III 전통형 문화적 배제 경제적 통합

먼저 여성가구주가 수적으로 다수이고 빈곤율이 높다면(미국) 독자적 가구형성의 문화적, 규범적인 제재는 낮지만 여성가구주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지원이 낮고 따라서 여성가구주의 경제적 독립성이 낮다. 이 경우 여성가구주는 독특한 빈곤특성을 보이는 별도의 집단군을 형성한다(I 분절형) 둘째, 독립형은 여성가구주가 문화적·규범적으로 통합되어 있고, 경제적인 독립성도 보장되어 있으며, 여성가구주가 많은 동시에 빈곤율도 낮다(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이 유형(II)는 여성가구주가 독자적인 가구를 형성할 수 있는 문화적, 경제적 기반이 확립된 국가들이다(Orloff, 1993). 셋째, 전통형은 이혼, 비혼 등 여성가구주의 독자적인 삶은 규범적으로 제재되지만 사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여성가구주에 대해 온정주의적, 확대 가족적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여성가구주는 소수이고 빈곤율 역시 낮다.

유형(IV) 배제형은 여성가구주가 문화적으로도 배제되어 있고 경제적으로도 취약한, 최악의 상황에 있는 국가들이다. 한국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여성가구주는 규범적으로 형성이 억제되어 소수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소외되어 있다. 이 경우 여성가구주는 전통적 온정주의와 현대적 지원망 모두 없는 경제적 사각지대에 있고 지원망의 부재 속에서 자립 능력 역시 약한 특징을 보인다. 특히, 한국의 경우, 여성가구주 비율이 낮는데 빈곤율이 매우 높다는 것은 여성가구주가 형성 단계에서도 억압되고, 형성된 후에는 더 불리한 사회경제적 조건에 처하게 되는 이중적, 연속적 사회적 배제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여성가구주의 빈곤의 심각성은 단지 빈곤위험이 높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배제와 고립이라는 특성에 의해 증충결정 되어 있다는 데 있다.

3. 여성가구주 하위집단별 비교 : 노인여성과 모자가구

가. 여성노인 가구주의 빈곤

여성노인의 빈곤은 생애주기 내내 경제적 취약성이 누적된 빈곤이며 젊은 시절의 빈곤의 연장선에 있는 경로 의존적 빈곤이다. 또, 여성노인의 빈곤은 독립적인 소득원이 없더라도 남성가구주의 부양 하에 숨겨진 빈곤상태로 있다가 나이가 들어 배우자나 부양자가 없어지는 경우 적나라한 형태로 드러나는 특징이 있다.

LIS 국가들과 한국의 여성노인가구주 빈곤위험을 비교하면 표 7과 같다. LIS 국가들에 비해 한국 여성노인의 빈곤율은 매우 높고 여성 노인가구주의 2/3가 빈곤하다(67.2%). 한국 18~64세 여성가구주 역시 1/4이 빈곤가구주라는 점에서 빈곤규모가 결코 적지 않지만, 한국 여성노인가구주의 빈곤위험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¹⁵⁾ 영미 자유주의 국가들과 지중해 연안의 남유럽 국가들에서 여성노인가구주의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한국만큼 높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노인에 대한 사회보장 수준이 낮은 국가들에서는 노인층 내에서 더 취약한 집단인 여성노인의 빈곤이 더 높게 나타나기 마련이다. 한국, 아일랜드, 대만이 50%가 넘는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경제활동 연령에 있는 여성의 빈곤율은 한국이 25%로 역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노인여성에 비해 그 정도가 덜하다. 그러나 이들 여성이 현재의 생애주기에서 경험하고 있는 빈곤은 장기화되고 누적되어 노인빈곤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목을 요한다.

표 7. 여성가구주 가구 연령대별 빈곤율

(단위: %)

국 가	65세 이상	18~64세	국 가	65세 이상	18~64세
호주	48.2	21.3	이탈리아	22.8	12.4
오스트리아	16.6	11.3	네덜란드	1.4	16.0
벨기에	13.6	11.3	노르웨이	16.4	14.9
캐나다	7.9	25.6	스웨덴	10.4	12.5
덴마크	9.1	8.7	영국	23.4	19.5
독일	14.6	14.0	미국	36.3	20.5
스페인	19.2	15.1	러시아	17.6	19.0
핀란드	10.2	7.4	대만	56.6	13.1
프랑스	12.9	17.7	멕시코	32.6	19.6
그리스	31.5	14.5	한국(05)	67.2	25.0
아일랜드	58.3	22.7	평균	26.3	16.3

자료: 표 4와 동일.

나. 모자가구 빈곤¹⁵⁾

모자가구, 즉 독신모는 여성가구주의 빈곤 특징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집단이다. 모자가구는 남성생계부양자의 부재로 인해 경제적 취약성은 증가하는 대신 자녀양육 부담으로 인해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운, 진퇴양란의 상황에 놓여있는 집단이다.

표 8에서 모자가구의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42.7%)이다. 모자가구를 형성할 경우 빈곤위험이 40% 이상이라는 것이다. 이에 비해, 한국의 모자가구 빈곤율은 30% 수준으로 스페인, 그리스, 독일, 네덜란드 등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는데, 미국, 캐나다보다는 낮지만 모자가구(single mother)의 빈곤위험이 높은 국가군에 속한다.

표 8. 모자가구 빈곤율(single mother poverty rate)

(단위: %)

국 가	모자가구 빈곤율	국 가	모자가구 빈곤율
핀란드	5.9	영국(99)	29.6
노르웨이	8.6	호주(01)	25.4
스웨덴	8.2	벨기에	15.7
덴마크	3.6	이탈리아	13.9

15) 한국의 경우 65세 이상 남성가구주 빈곤율 역시 매우 높은 핀란드 빈곤율은 40.9%이다. 이에 비해 18~64세 남성가구주의 경우 빈곤율은 8.6%에 불과했다.

표 8. 계속

(단위: %)

국 가	모자가구 빈곤율	국 가	모자가구 빈곤율
스페인	30.3	프랑스	25.2
네덜란드(99)	33.8	멕시코(02)	24.3
그리스	32.9	러시아	25.8
독일	31.6	대만	19.2
미국	42.7	한국(05)	31.8
캐나다	36.7	평균	23.4

자료: 표 4와 동일.

표 9는 노인여성가구주와 모자가구 빈곤율을 비교해서 국가 조합을 작성한 것이다. 먼저, 사회 보장의 수준이 높고 여성들의 노동시장참가율이 높은 북구국가들의 경우 여성노인가구와 모자가구 모두 낮은 빈곤율을 보이지만 모자가구의 빈곤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더 취약한 집단은 노인여성이다. 둘째,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모자가구 빈곤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성노인의 빈곤율도 높지만 모자가구의 빈곤위험은 더 높게 나타난다. 이들 국가의 경우, 전반적으로 여성가구주의 빈곤위험이 높지만 노령으로 인한 위험보다 양육부담이 여성을 경제적으로 더 취약하게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여성노인의 경제적 상황이 극단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모자가구의 빈곤율 성적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보이기도 한다.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 볼 때, 한국 여성가구주의 빈곤은 연령적 특징을 강하게 띠며 노인빈곤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표 9. 여성가구주 취약집단별 국가군 분류

취약집단: 여성노인		취약집단: 모자가구	
빈곤율 낮음	빈곤율 높음	빈곤율 높음	빈곤율 낮음
I	II	III	IV
사민주의	가족주의형	자유주의	조합주의
스웨덴	대만	미국	네덜란드
덴마크	한국	영국	독일
핀란드	멕시코	캐나다	프랑스
노르웨이	이탈리아	그리스	벨기에
	스페인	러시아	
	호주		

16) 이 연구에서는 통례에 따라 모자가구를 모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구성된 가구로 정의하고 빈곤율을 살펴보았다.

표 9는 여성가구주 빈곤을 파악하는데 있어서도 기존 복지레짐 논의의 유형론적 분류(Esping-Andersen, 1999)가 일정정도 타당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북구 사민주의 국가는 여성 빈곤율이 전반적으로 낮으면서 여성노인의 빈곤율이 모자가구보다 높은 국가군이다. 둘째, 자유주의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빈곤율이 높으면서 모자가구의 빈곤율이 높다는 점에서 사민주의 국가들과 정반대의 특징을 갖고 있다. 셋째, 조합주의 국가군으로 불리는 유럽대륙 국가들에는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이 속하는데, 노인빈곤율과 모자가구 빈곤율이 양극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네덜란드를 제외한다면 다른 국가들은 대체로 중위수준의 빈곤율을 보이며, 여성노인보다 모자가구가 경제적으로 더 취약하다. 한국은 노인여성 의 빈곤율이 더 높지만 빈곤규모가 북구국가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기 때문에, 대만, 멕시코 등과 더불어 다른 국가군으로 구분될 수 있다.

분류가 어려운 국가들은 하단에 위치한 이탈리아, 스페인, 호주, 그리스, 러시아 등이다. 호주의 경우 영미국가들과 유사한 경향을 보일 것으로 기대했으나 한국, 대만 등과 유사하게 여성노인의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남유럽 국가들은 동아시아 국가들과 유사하게 가족주의적 특성을 공유하고 복지수준에 있어서도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낮다는 점은 종종 지적된 바이다. 여성빈곤과 관련하여서도 이탈리아, 스페인은 한국과 동일한 특징을 보이고 있지만, 그리스 는 모자가구의 빈곤율이 더 높게 나타나 남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차이에 대해서는 분석 대상 연도의 특수성으로 인한 것인지, 다른 제도적 요인이 교차하고 있는지 추가분석이 필요하다. 또 여성가구주의 빈곤특성이 기존 정치체제 중심의 복지레짐 분류에 의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 정치적, 제도적 요인에 대한 문제의식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IV. 결론

한국 여성가구주의 빈곤을 국제적인 수준에서 비교한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여성가구주의 빈곤은 절대적인 빈곤규모나 남녀의 상대적 규모 차이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있다. 여성가구주의 40%가 빈곤한 경우는 한국 사회밖에 없으며, 남녀의 빈곤격차가 20%p이상인 국가 역시 한국밖에 없다. 한국사회 빈곤의 여러 특성이 있겠지만, 국제적인 수준에서 여성빈곤은 최악의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여성가구주의 빈곤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다시 한번 강조될 필요가 있다.¹⁷⁾

둘째, 빈곤층에서 여성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남성보다 낮다는 점에서, 한국사회는 “아직” 빈곤이 여성화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구주의 인구학적 비중이 적다는 점을 고려했을

17) 여성가구주의 빈곤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은 여러 정책보고서 및 연구서 등을 통해 제안된 바 있다(박영란 외, 2003; 김안나, 2006). 문제는 정책의 우선성을 결정하고 재원을 배정하여 실질적인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드는 의사결정권자들의 정책의지이다.

때 한국 사회에서도 여성은 빈곤층에 과잉대표(over-representation)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성가구의 비율은 낮는데 빈곤율이 매우 높다는 것은 여성가구 가구의 형성 자체가 규범적으로 억제되었고 또 형성된 후에는 사회적 지원망의 부재 속에서 빈곤위험이 높은, 이중적 연속적 사회적 배제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여성가구 빈곤을 하위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 모자가구보다 여성노인의 빈곤이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모자가구에 비해 여성노인의 빈곤율이 높은 국가는 사민주의 국가와 가족주의적 특징을 띤 한국, 대만과 같은 나라이다. 반면, 자유주의 국가들과 조합주의 국가들에서는 모자가구의 빈곤위험이 더 크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구분은 크게 에스핑-앤더슨의 세가지 복지레짐 혹은 가족주의 모델을 포함해 확장한 네가지 복지레짐 분류와 일치하는데, 여성빈곤과 관련하여 레짐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복지정치와 젠더정치의 측면을 고려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김수정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복지국가 가족지원체계의 구조변동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관심분야는 여성빈곤, 가족정책, 비교복지연구이며, 현재 젠더빈곤격차, 남녀시간사용의 차이와 관련된 국제비교 연구 등을 주제로 연구를 하고 있다(E-mail: ksujeong@hanafos.com).

참고문헌

- 김수정(2007).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원인과 빈곤위험의 젠더격차. *페미니즘 연구*, 7(1), pp.93-133.
- 김안나(2006). 한국사회 여성빈곤과 빈곤대책. *보건사회연구*, 26(1), pp.37-68.
- (2007). 외환위기 이후 여성빈곤의 실태와 대책방안. 한국비판사회학회 경제인문사회 심포지움. 2007년 11월 24일.
- 김영란(1997). 빈곤의 여성화와 사회복지정책. *한국사회복지학*, 31, pp.1-28.
- 박영란, 정진주, 황정임, 권문일, 김창엽, 석재은, 엄규숙, 유태균, 정인숙, 황수경(2003). 여성빈곤 퇴치를 위한 정책개발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변화순, 김혜영, 윤희식, 한지숙(2006). 이혼 후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 한국여성개발원.
- 석재은(2004). 한국의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6(2), pp.167-194.
- 여유진, 김미곤, 김태완, 양시현, 최현수(2005).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지영(2003). 여성가구주와 남성가구주의 빈곤차이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과, 서울대학교, 서울.
- 윤희식(2004).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소득수준 및 빈곤실태와 공·사적소득이전의 역할. *한국사회복지학*, 56(2), pp.5-27.
- 이혜경(1998). 빈곤의 여성화 : 한국 여성빈곤의 원인과 결과. UNDP 한국대표부 편, 빈곤퇴치: 한국의 경험과 교훈. UNDP.
- 이혜경, 최은영(1997). 한국 여성빈곤의 원인과 결과. *연세사회복지연구*, 4, pp.142-185.
- Brady, D., & Kall, D. (2008). Nearly Universal but Somewhat Distinct: The Feminization of Poverty in Affluent Western Democracies, 1969-2000. *Social Science Research*, 37, pp.976-1007.
- Brenner, J. (1987). Feminist Political Discourses: Radical Versus Liberal Approaches to the Feminization of Poverty and Comparable Worth. *Gender and Society*, 1(4), pp.447-495.
- Cagatay, N. (2001). *Trade, Gender and Poverty*. London: UNDP.
- Casper, L. M., Mclanahan, S. M., & Garfinkel, I. (1994). The Gender-Poverty Gap: What we can learn from other count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9(4), pp.594-605.
- Christopher, K., England, P., Smeeding, T., & Phillips, K. (2002). The Gender Gap in

- Poverty in Modern Nations: Single Motherhood, The Market, and the State. *Socio-logical Perspectives*, 45(3), pp.219-242.
- Christopher, K. (2002). Welfare State Regime and Mother's Poverty. *Social Politics*, 9(1), pp.60-86.
- ESCAP. (2000). Empowerment of Women in Poverty. ESCAP Women in Development Discussion Paper Series no.8.
- Golberg, G. S., Kremen, E. (1990). *The Feminization of Poverty Only in America*. Praeger.
- Gonyea, J. (1994). The Paradox of the Advantaged Elder and the Feminization of Poverty. *Social Work*, 39(1), pp.35-41.
- Marcoux, A. (1998). The Feminization of Poverty: claims, facts and data need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4(1), pp.849-865.
- McLanahan, S., & Kelly, E.L. (1999). The Feminization of Poverty: Past and Future. in Chafetz, J.S. (ed.) *Handbook of the Sociology of Gender*. Kluwer Academic.
- McLanahan, S., Sorensen, A., & Watson, D. (1989). Sex Differences in Poverty 1950~1980. *Journal of Women in Culture and Society*, 15(1), pp.102-122.
- Medeiros, M., & Costa, J. S. (2006). Poverty among Women in Latin America: Feminization or Over-Representation, UNDP International Policy Center Working Paper no.20.
- Pearce, D. (1979). Women, Work and Welfare: The feminization of poverty. in Feinstein K.W.(ed) *Working Women and Families*. Sage Publications.
- Pressman, S. (2003). Feminist Explanation for the Feminization of Poverty. *Journal of Economic Issues*, 37(2), pp.353-361.
- Wiepking, P. (2004). Gender Differences in Poverty: A Cross-National Research. Luxembourg Income Study working paper, no.389.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Poverty of Female Householders in Korea

Sujeong Kim
Dong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poverty of female-headed householders(FHH) in Korea from the comparative perspective, using LIS micro data and KoWePS. In terms of the size and gender ratio of poverty, the situation of Korean FHHs is the worst. The poverty rate of Korean FHH is more than 40% and the gender poverty gap is about 20% point. Secondly, the proportion of FHH under the relative poverty line(50% of median income) is lower than that of male householders, and therefore poverty is not yet feminized in the poor population in Korea. However, FHH are over-represented in the poor (40%) compared to their relatively small population size(18%). Thirdly, in Korea elderly women are more likely to be poor than single mothers. From the comparative analysis, we found that the poverty risk of elderly women is higher not only in familiaristic countries like Korea and Taiwan but in the social democratic countri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are that poverty rate of the latter is very low in general. In contrast, the poverty of single mother is worse in liberal and corporatist countries. Based on these heuristic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at differences in poverty profiles of women householders among the regimes should be explained in detail.

KEY WORDS

Female-Headed Householder, Feminization of Poverty, Single Mother, Welfare Regime, Gender Poverty Gap